김동연 경기도지사./사진제공=경기도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(시도지사) 지지 확대지수 조사에서 21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. 긍정평가 부문에서도 전월 대비 6.5%p 대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.17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4월 광역자치단체장 지지 확대지수(ESI)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133.6점을 기록했다. 관련 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21개월째 1위를 유지했다. 김 지사의 3월 지지 확대지수는 120.4점으로 한 달 사이 13.2점 상향됐다.2위는 김진태 강원지사로 100.4점이며, 다른 시도지사는 모두 100점 미만이다.지지 확대지수는 선거 득표율(김동연 지사는 49.1%)을 기준으로 단체장에 대한 월별 긍정 평가 증감 여부를 수치화한 것이다. 지수가 100을 넘어가면 임기 초 대비 지지층이 확대됐다는 의미이며 반대의 경우는 지지층이 축소됐음을 의미한다.광역단체장 긍정평가 부문에서 김 지사는 긍정 65.6%로 전월 대비 6.5%p 상향됐다. 순위도 지난 3월 4위에서 4월 2위로 올랐다. 1위는 김영록 전남지사로 65.9%다. 상위 10위권 단체장 대부분이 3월 대비 긍정평가 지수 변화가 미미하거나 하락했지만, 김동연 지사만 상승했다.광역단체장 정당지표 상대지수 부문에서 김 지사는 124.2점으로 점수는 전월과 같지만, 순위는 4위에서 3위로 올랐다. 이 지수는 100을 상회하면 해당 지역의 보수·진보 정당 지지층에 비해 지지층이 많고, 100에 미달하면 지지층이 적다는 의미다.전국 17개 광역시·도 주민생활 만족도 평가에서 경기도는 전월 66.5% 대비 0.5%p 오른 67.0%로 순위도 3위에서 2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. 1위는 대전 광역시로 68.8%다.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3월 28~30일, 4월 26일~5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.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서 ±3.5%포인트, 응답률은 2.4%다.